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일석삼조 효과

주민이 심은 경관수목 군이 매입 출범 6개월만에 26만본 공급 주민 소득에 군 예산 78억원 절감



신안군 관계자들이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경관수목 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주민이 심고 군이 매입해 경관 살린다.
신안군의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이 출범 6개월 만에 특목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안군이 주민들이 재배한 경관수목 등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주민소득과 예산절감은 물론 일자리창출, 지역소멸·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를 거쳐 신안군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원수협동조합에는 14개 읍면에서 현재 3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내년 1월까지 400~500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140농가에서 경관묘목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도읍 썸머라일락 20만주, 압해읍 조팝나무 13만주, 비금면 배롱나무 3만주 등 6개 읍면에서 57만주의 정원수를 재배하고 있다.
신안군은 조합원로부터 26만본의 경관식물을 공급받아 서남해안 섬순 복원사업과 미세먼지 차

단순, 1심 1정원 조성사업에 식재했다.
이를 통해 경관수를 납품한 조합원은 1인당 5000만원의 수익과 3000여 만원의 순소득을 올렸다. 신안군도 외지에서 입찰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108억원에 달하는 경관식물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조달해 예산절감 효과만도 7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최초 출범한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의 효과는 직접적인 주민 소득증대와 군의 예산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주민소득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소멸을 막고, 1년 수심만 그루의 나무와 꽃 식재는 탄소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임자 홍매화, 도초의 수국, 비금의 해당화 등 꽃과 나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이 공유자원을 활용한 햇빛 연금·배람연금에 이어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정원수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 양묘소득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내년 6월까지 230억원 상당의 수종 30여 종 200만주를 발주했다.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매년 230억원, 5년간 1000여 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조합을 통한 경관식물 재배와 체계적인 관리·공급은 신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정원화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은 농외소득 창출, 예산절감,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대응 등 1석 4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조합의 적극적인 양묘사업은 청·장년·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내년 장학금 5억여원 지급 목포인재육성재단 심의·의결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이 내년 연간 615명, 5억9700만원 규모 장학사업안을 심의·의결했다.
목포인재육성재단은 최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사업추진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했다.
정기 이사회 회의에서는 2024년 세입·세출안과 재단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장학사업 규모는 연간 615명, 5억9700만원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목포 우수 인재들의 국제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어학연수 사업을 새롭게 진행한다.
지역 중학생들이 중국어권(48명)과 영어권(16명) 국가에서 언어·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재단은 이날 재단 자산 증진을 위해 장학금조성을 위한 2억 출연금(안) 안건도 가결했다.
목포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박홍을 목포시장은 "목포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며 "장학금 대상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설립된 목포인재육성재단은 그동안 8800여 명에게 59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역 우수 인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상향 지급하고 예체능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등 장학사업을 확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3년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 공유대회에서 여러 상을 거머쥐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우수상

전국 성과 공유대회 5명 수상
올해 5개 의료기관에서 2681건의 원격 진료료 한 완도군이 보건복지부 '2023년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완도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열린 2023년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전국 성과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완도군은 개인 부문인 보건복지부장관상(3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2명) 등 총 5명의 수상자로 배출했다.
완도군은 완도대성병원, 고금의원, 신지보

건지소, 금당보건지소, 보길보건지소 등 5곳과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협약을 맺었다.
이들 의료기관은 총 2681건의 원격 진료를 했다. 이는 지난해의 2배 이상 늘어난 건수다.
완도군은 의료기관이 없는 18개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의료 혜택을 지원했다. 완도대성병원 소아청소년과와는 업무협약을 맺어 섬 지역 소아·청소년들의 의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광일 완도군 보건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통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 기자 전담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전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일 '2023 장애인 일자리 제도 개선 포럼'을 열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장총, 장애인 일자리 제도개선 포럼

무장애관광지원센터 건립 등 논의
사단법인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장총)가 무장애관광지원센터 건립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장총 장애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2023 장애인 일자리 제도개선 포럼'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어디까지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남장총 회원 단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민정 수어 통역사의 통역과 함께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고용 무장애' 등 의견을 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지원제도, '무장애 관광의 현실과 개발', '2024년 장애계 5대 정책 과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행사 1부에서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축하 영상 상영하고, 임흥민 상임대표가 '장애인 단체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후 임성숙 교수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을 했다.
2부에서는 박마루 복지TV 사장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편의시설 개편과 지역사회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는 최영수 세한대 교수(무장애관광 개발), 이지영 통영 뚜벅뚜벅 이사(무장애 관광이?), 김선금 표준사업장 대표(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취업), 신상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장애인고용 무상지원금과 장애인고용 장려금) 등이 의견을 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영암군 쌀값 안정화 대책 지역농협, 농가 벼 전량 매입

영암군 지역사회가 농민 불안 해소, 쌀 유통 안정화 등을 위해 속의의 장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공공비축미 이외에 농가 판매 희망 벼 전량 물량의 '지역농협 전량 매입'을 결정했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강찬원 영암군의회회장, 지역농협 조합장 등은 지난 4일 군청에서 '쌀 수급 현안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지난 10월, 영암 지역농협은 수매하는 벼의 우선지급금을 40kg당 6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우선지급금 5만7000원 보다 높게 책정해 지역 내 쌀 가격과 유통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후 쌀가격 하락세 지속, 공공비축 수매물량 전년 대비 대폭 감소, 민간 쌀 유통업체 벼 매입 지연 등 약세가 겹쳤다.
여기에 지역농협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한 5만661t을 자체 매입해 큰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농협의 결단을 끌어낸 것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줘서 고맙다"며 "영암군도 지역사회와 함께 쌀값 지지와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